지역 소식통

김제시,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김제시는 2일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을 위하여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김제경찰서 및 교사,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개학 첫날 등교시간에 맞춰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학교주변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3월 한 달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중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시내지역 4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들을 점검 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경찰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2일 오전 8시10분 김제소재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 협력 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학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제경찰서 황대규 서장을 비롯해 김제경찰, 김제시청 안전개발국장 등 김제시청 관계자, 중앙초등학교 교장 등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첫 등굣길을 걷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켜야 할 5개 원칙' 등을 홍보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차를 보며 뛰지 말고 걸어요' 문구가 새겨진 교통안전 홍보용품 연필과 자를 배부하여 아이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급수관 신설관로 사업 시행

김제시가 수압이 약하고 수량이 부족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과 동떨어진 가구 중 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에 급수관 신설관로 사업을 시행한다.

김제시는 급수관 공사를 위해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검산동을 비롯한 10km 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급수관경 D=25㎜~100㎜로 각각 신설한다.

검산동 지역은 전원 주택 신축 등으로 생활용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기존 설치된 상수도관을 통해 수돗물이 공급돼 저수압으로 인한 불편함이 야기되어 왔다. 공사가 완료되면 검산동을 비롯한 151세대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군, 불가사리 발효 액비 자원화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내년까지 수거 되는 불가사리 활용 자원화
2차 환경오염 방지 · 농가경영비 절감 기대

부안군은 '불가사리 발효 액비 자원화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63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84건의 사업을 신청받아 3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불가사리 발효 액비 자원화사업은 남비해소 분야에서 다른 사업보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 삶의 질 개선면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

부안·정읍·고창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안과 고창 일원에서 수거 되는 불가사리를 활용해 자원화함으로써 불가사리 구제에 따른 2차 환경오염 방지와 함께 농가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이웃한 지자체가 주민생활과 직결 되는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 프로그램 공모

6일~10일까지 신청 · 접수 13개 동아리 선정 지원

평생학습도시 김제시는 시민의 학습역량 강화, 유기적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2017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5일간)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우수 동아리 공모대상은 김제시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로 성인 10인 이상으로 구성, 월2회 이상 지속적인 학습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이며, 신청 동아리 중 13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6년 3월 이후 등록한 신규 동아리에 대해서는 2개소를 선정, 새롭고 참신한 동아리를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프로그램 공모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 평생교육 기관으로 △평생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주말과정 평생교육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개소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참여를 원하는 기관·단체, 동아리에서는 김제시 홈페이지(http://gimje.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10일까지 김제시 인재양성과(☎540-3822)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기자

사회적기업 산영영농조합법인

장애인생활시설 나눔의집에 계란 기부

사회적기업 산영영농조합법인(대표 방기환)에서 최근 장애인생활시설인 나눔의집(대표 문성하)에 계란을 기부했다.

자체 생산한 유정란 100판을 기부한 방기환 산영영농조합 대표는 "최근 AI 여파로 계란 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계란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산영영농조합법인은 옹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고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기업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30% 이상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정읍지역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 활동을 하며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하는 사회환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학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이현주)는 2일 부안군 유관기관(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 원청)과 합동으로 '365일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청소년'을 슬로건으로 신학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른 아침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부터 부안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 인성담당교사와 학생부, 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부안교육지원 청의 협조 아래 진행됐으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새로운 출발과 새학기 시작을 축하하고 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사업 및 청소년전화 1388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사업으로 부안군 청소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 뿐 아니라 위기(가능)청소년 및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긴급지원(의료 및 학업지원 등)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농기센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주요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부처별 국비 추가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2019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자체 보고회를 농업기술센터 5개 과장 및 업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보고회는 지난 1월에 실시하였던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이어 올해 2번째 실시하는 자체보고회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맞추어 국가예산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I 등 가축전염병 취약지구이자 새만금수질의 주 오염원인 용지지역 환경개선사업인 「용지산단계 밀집지역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 국산밀이용 가공, 상품화 체험기술 시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지역전략 잠곡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중점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정부예산 확보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정부3.0 특강

김제시는 2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장 장헌범 서기관을 초빙해 김제시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라는 주제로 2017년도 정부3.0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빠르게 바뀌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도입한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에 대한 공직자의 변화관리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올해 행정자치부 정부3.0 강의로 김제시가 첫 빗장을 열었다.

장헌범 과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정부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참여를 유도해 고품격 정책 개발·추진, 국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공직자의 선도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날 강의는 정부3.0에 대한 기본 이해 및 그간 국민생활의 긍정적인 변화와 특색 있는 사례별 아이디어를 쉽게 설명하고 시대변화 속 대응 자세 등 개인과 조직의 변화관리를 강조하여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김제=곽노태기자